

'가족과 함께 책방 가는 날' 선포

'책의 날' 기념해 서울시내 서점 중심으로 가두 캠페인 등 행사



제11회 '책의 날' 기념식과 '가족과 함께 책방 가는 날' 선포식이 지난 10월11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정원식)가 주최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7개 단체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송태호 문체부장관, 정원식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장, 나춘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 소설가 조정래씨 등 정부, 사회·문화단체 및 출판 관련업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정일 출협 상무이사의 '책의 날을 만드는 글' 낭독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나춘호 출협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국민독서의 생활화, 출판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강조했다. 송태호 문체부장관은 축사에서, 책은 국가와 국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21세기의 문화시대를 맞아 '가족과 함께 책방 가는 날' 행사가 책의 중요성과 독서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운동으로 뿌리내리길 기원했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 우수도서 출판을 통해 출판문화 발전 및 출판인 위상 제고에 기여



한 공로로 김상욱(하서출판사), 정인철(한국프리벨), 오세경(법전출판사), 황수원(갑인출판사) 대표 등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김영철(전원문화사), 엄석오(양우당), 이석호(한국안데르센), 이충원(선문사) 대표는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외에 문체부장관상, 한국출판공로상, 독서진흥상, 출판유공자상 등의 시상이 있었다.

매월 첫째 토요일을 '가족과 함께 책방 가는 날'로 제정, 선포한 의의를 밝힌 정원식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올바른 가치관의 회복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독서력 증진을 통한 문화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예인 선우은숙씨의 '가족과 함께 책방 가는 날' 선포문 낭독으로 식을 마친 후 세종홀에서 축하연을 가졌다.

이어 오후 1시부터 주관기관 및 교보문고·종로서적·화정문고 등 서점별로 세종문화회관, 광화문, 무역회관, 화정전철역 등 서울시내 일원과 주변부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행사 기념버튼을 달아주고 전단을 배포하는 등 '가족과 함께 책방 가는 날'의 의의를 널리 알렸다. 한편 각 서점에서는 부모와 함께 책찾기 대회, 독자가족 가훈 써주기, 초등학생 독서백일장, '책 속에 우리 가족' 사진 찍어주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전국민적인 독서생활화운동이 뿌리내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앞으로 매달 첫째주 토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책방 가는 날' 행사가 각 서점별로 계속된다. — 박천홍 기자



1 세종문화회관 앞 거리에서 벌인 '가족과 함께 책방 가는 날' 가두 캠페인. 나춘호 출협회장, 백석기 웅진출판사 대표 등 행사관계자들이 기념띠를 두르고 플래카드를 앞세우면서 시민들에게 행사의 취지를 널리 알렸다.

2 제11회 '책의 날'을 기념해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족과 함께 책방 가는 날' 선포식. 정원식 독서새물결추진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책 읽는 기정, 독서하는 사회, 문화가 생동하는 국가의 건설이 이 날의 제정 의의라고 밝혔다.

3 일산 신도시 화정전철역 앞 광장에서 열린 '가족과 함께 책방 가는 날' 선포식 기념 '초등학생 독서백일장 대회'. 주제는 '책, 우리 마을, 우리 가족'. 가을하늘을 보면서 구상에 잠기거나 고운 손으로 도박도박 원고를 쓰고 있다. 소설가 은희경·함정임, 김병준 지경사 대표 등이 심사를 맡아 수상자에게 상패와 도서상품권을 수여했다.

4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시민들에게 전단을 배포하고 행사 기념버튼을 달아주는 영화배우 이영하씨. 밝은 표정으로 책과 독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깨웠다.

5 교보문고에서 열린 '부모와 함께 책찾기 대회'에 참가한 엄마와 아이가 행사담당자에게 찾은 책을 가져다주고 있다.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책을 찾았다는 자랑이 표정에 담겨 있다. 30가족이 도서상품권을 선물로 받았다.

6 일산 신도시 화정문고에서 열린 '책의 바다 속에서 책찾기' 대회. 엄마와 아이들이 손을 잡고 진열대에서 열심히 책을 찾고 있다. 이날 16가족에게 번개상, 총알상, 치타상으로 나누어 도서상품권을 선물했다.

